



△ 홍동마을엔 정말 다양한 마을공동체가 존재하는데, 이들의 중간지원조직이자 자체적으로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로 '지역센터마을활력소'의 모습



순환과 공생이 잘 어울리는 홍동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그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마을엔 뭔가 특별한 게 있잖아?!'
그러나 그 특별함은 오히려 편안함과 포근함으로 다가왔고
마을주인이 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 하주였다.

필자는 지난 2월 어느날 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진행된 홍동마을 견학의 기회를 얻었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자리잡은 이 마을은 하루에 다 둘러볼 수 없는 볼수록 매력이 가득한 곳이었고 귀농을 꿈꾸는 도시민들의 로망(?)이기도 했다. 이번호에서 필자는 시간대별로 홍동마을을 둘러본 사진들로 채워보려 한다(모두 담을 수도 없어요 ㅠㅠ).

■10:00 마을활력소



마을활력소를 제일 먼저 찾았다. 홍동마을의 지도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우리가 생각하는 농촌의 지도와는 다르게 뭔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더불어 사는 마을, 생각하는 농민”이 모토인 마을활력소는 홍동마을의 머리이자 손과 발이다. 오히려 손과 발이 되어 더욱 바쁘게 돌아가는 듯. 결국 소통을 위한 창구이자 정보 공유의 장이라고 보면 될 듯 싶다.

어 사는 마을, 생각하는 농민”이 모토인 마을활력소는 홍동마을의 머리이자 손과 발이다. 오히려 손과 발이 되어 더욱 바쁘게 돌아가는 듯. 결국 소통을 위한 창구이자 정보 공유의 장이라고 보면 될 듯 싶다.

■10:20 풀무학교 고등부

“더불어 사는 평민을 기르자”는 학교 이념을 갖고 약 54년 동안 홍동마을의 터주대감으로 자리잡았다. 지금의 홍동마을을 만든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 혹시라도 이 학교에 입학하려면 먼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버티지 못하면 다닐 수 없다. 그럼에도 입학 경쟁률은 3~4:1이라고 오홍섭 교장 선생님이 말한다.



홍성 품무학교 고등부, 정확히 말하면 품무농업고등학교다. 1958년 설립된 이 학교는 농업인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지만 어쩌면 일인지 외부에서는 마치 '대안학교'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오송초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간담회



품무학교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있다

“처음 여학생들은 우아하게 학교 다닐꺼라 생각하지만, 첫 실습이 바로 거름뿌기다. 3~4개월만 지나면 모두 일명 ‘몸빼바지’를 입고 다니게 된다.”고...

그리고 이 학교의 특이한 것은 졸업이란 말을 쓰는 대신 ‘창업’이라고 한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이라. 한 학년은 대략 30명 정도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충남 출신이 가장 많이 입학했고, 다음이 경기지역, 그리고 전남, 전북 등의 순이었다.



꿈이 자라는 뜰은 한 마더로 이름다운 공동체이다. 바로 마을의 장애우들을 위해 지역과 학교가 함께 가꾸는 마을다(자)인터이기 때문이다.



허브차를 키우는 나무를 두둑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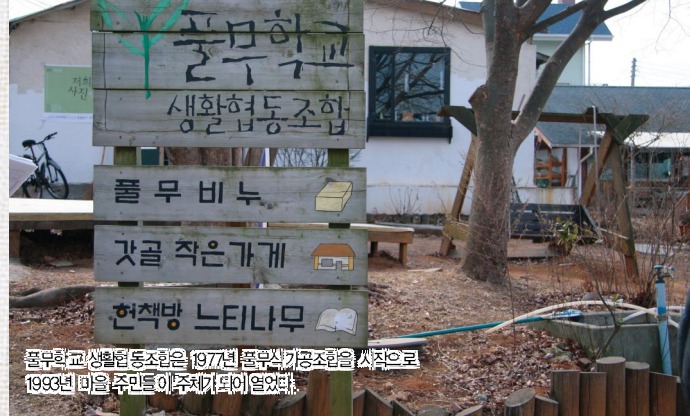
주로 박하 등 허브를 키우고 있다

■ 11:00 꿈이 자라는 뜰

2009년... 200평 규모로 시작된 '꿈이 자라는 뜰'은 그 이상의 꿈을 담고 있다. 바로 농사를 체험하며, 성장하고 일자리도 찾아주는 역할까지 한다. 그리고 흥동초등학교, 흥동중학교, 풀무학교 등과 연계해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본틀도 만들고 있었다. 설명을 맡은 최문철 선생님은 "이곳은 농촌다움이 반영된 현장 교육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각자 네모난 나무를 두둑에 주로 허브차를 재배,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외지에서 온 관계자들이나 장애우 부모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곳이란다.

■ 11:30 풀무학교 생활협동조합, 갓골 작은가게, 현책방 느티나무, 농생태원 예조합 가꿈 등

풀무학교 생활협동조합은 학교와 마을에서 정직하고 건강하게 농사지은 우리통밀로 빵을 굽고,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기름을 모아 되돌림 비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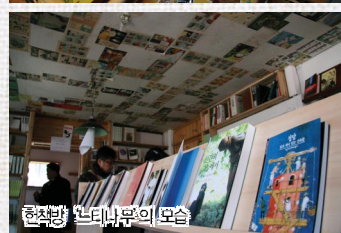
풀무학교 생활협동조합은 1977년 풀무학교 공동조합을 시작으로 1993년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열었다.



갓골 작은가게에서 판매하는 농산물과 가공품



갓골 작은가게는 일터이기도 하다. 풀무학교 졸업생들의 취업까지



현책방 느티나무의 모습



만들며,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한다. 바로 '갓골 작은가게' 그것이다. 정말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빵맛은 일품이다. 꼭 무조건 의심없이 먹어봐야 한다. 무엇보다 풀무학교 생활협동조합으로 모아진 돈은 모두 이 지역에서 순환되며, 지역과 어우르는 학교에 힘을 실어주는데 쓰이고 있다고 한다.

갓골 작은가게 바로 옆엔 주인장(?) 없는 현책방이 하나 있다. '느티나무'라고 이름지어진 이 현책방에는 세월이 흐른 다 죽어가던 책들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물론 현책방만 판매하는 건 아니다. 최신식(?) 무인 결제 시스템을 갖춘 이 현책방이 안내하는 문구는 하나다. '책 뒷표지를 열면 책값이 붙어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흥동마을에 자리잡은 '그물고 출판사'에서는 마을공동체가 만든 책들을 발간하고 있기도 하다.

■12:20 밤말도서관

풀무학교 설립자인 이찬갑 선생의 호를 따서 이름 지은 '밤말도서관'은 2011년에 만들어진 마을 주민들의 교류의 장이다. 밤말은 말 그대로 '밝고 맑게'의 줄임말. 밤말도서관 홍순명 이사장을 직접 만났다. 1960년부터 풀무학교 교사를 하며 협동조합운동을 개척하고 2001년에는 2년제 대안대학인 풀무학교 전공부를 만든 장본인이다.

홍 이사장은 "전국에서 기증받은 책들이 한가득인데, 앞으로도 더 많은 책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며 책 기부를 당부했다.(우리 연구원도 이에 부응하기로...)



■13:00 점심식사



‘생미식당’이란 곳이였다.

또한 바로 옆에는 ‘생미장터’가 운영 중인데, 홍성에서 키운 유기농 로컬푸드 직매장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 협동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활동중인 기업과 단체들의 홍보 전시 판매 공간이기도 했다.

식사는 둘째치고 둘러보기 더 바빴다. 지난해 캐나다 퀘벡의 협동조합 선진사례를 배우기 위한 해외출장에서 왔던 로컬푸드 직매장보다 오히려 더 깔끔하고 좋아보였을 정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 및 단체는 23개였으며, 상호 정보 공유와 민관 협력, 대외교류, 교육홍보,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14:00 풀무학교 전공부, 갯골 목공소

풀무학교 전공부는 2년제로 운영되는 대안 교육기관이다. 일종의 예전 전문대 성격이라 보면 된다. 주로 농사와 인문학 중심의 학습이 주를 이룬다.

그럼 여기를 졸업하면 어디로 취업하나? 외지로 나가는 비율은 20% 정도이고 대부분은 홍성지역에 정착한다고 한다. 놀랍다. 풀무학교 고등부와 전공부는 전국에서 모이는데, 그들의 80%가 이 지역에 정착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젊은 피(?)가 많다는 의미다. 물론 농업 관련 직종이 대부분이

배가 많이 출했다. 금강산도 식후경은 맞지만 우리가 찾아간 식당 역시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과 우리를 이어주는 사회적경제

홍성군내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참여단체들이 만드는 가공품을 홍보 · 전시 · 판매하고 있습니다.

- + 농업회사법인 (주)다살림
- + 농업회사법인 (주)한국도라지
- + 농업회사법인 홍성풀무(주)
- + 내현권역추진위농농조합법인
- + (주)홍성반딧불이농업회사법인
- + 문화연구소<길>
- + (주)왕대골농촌체험 마을기업
- + (주)지랑
- +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 + 태광영농조합법인
- +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 + 홍성군자원봉사센터
- +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 + 홍성군희망마을협의회
- + 홍성귀농지원연구회
- + 홍성문화원
- + 홍성사회복지관
- +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 + 홍성이주민센터
- + (주)홍성주거복지센터
- + 홍성지역자활센터
- + 홍성풀무나눔미영농조합법인
- + 홍성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
- + 홍성YMCA



물우학교 전공부 장길섭 교사와의 간담회 자리. 귀농귀촌에 대한 얘기가 화두로 떠올랐다



물우학교 전공부 건물



물우학교 전공부의 장길섭 교사



갯골 목공소를 운영중인 방인성 대표



갯골 목공소 전경

라고 한다.

홍동마을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주민교사'다. 고등부나 전공부를 졸업하면 마을내에서 각 분야별로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는데, 자원봉사의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다고. 외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견학시 가이드 역할을 한다던지, 강사로도 활동한다.

문제도 있다. 바로 주거 문제. 장길섭 교사는 귀농귀촌자들에게 지역의 빈집을 찾아 알선해주는 역할도 매우 크다고. 또한 귀농인이 많아지다 보니 농사지를 땅도 점차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홍동마을만의 문제가 아닌 군 차원의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전공부 건물 밑으로 내려가면 '갯골 목공소'가 위치해있다. 이 목공소 운영도 바로 전공부 졸업생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주민교사 역할과 함께 말 그대로 일터가 된 곳이다. 올해로 7년째다. 일반적으로 목수라고 하면 고리타분하다거나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는 목수가 참 많다고 한다. 갯골 목공소 대표인 방인성 선생은 "주문생산이 대부분이고 목공을 배우고자 하는 주민이나 수강생들도 끊이지 않는다. 밤밭도서관의 책꽂이들도 모두 여기 목공소에서 제작해 납품했다."고 말해주었다.

■16:00 홍동마을 책 만들기... 그리고 에필로그



연출, 출연 모두를 마을주민이 책임지는 홍동마을의 야심찬 기획! 그렇게 우리 마을이 유명하다면 정말 제대로 알려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일까? 지속적인 마을 발전을 위한 내부 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일까?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책은 마을주민이 원고를 작성한다. 마을의 특성을 살려 마을, 교육, 농업농촌 등의 큰 주제를 달고 각자 맡은 주제의 글을 써내려가기로 했다고. 여기서 모두 밝힐 순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을 만들기의 이론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마을주민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생활속의 에피소드를 비롯해 인터뷰, 그리고 농촌 삶의 어려움도 함께 나눌 예정이란다. 홍동마을 책은 아마도 올해 중반쯤이면 만날 수 있으리라 본다.

자 이제 앞서 필자가 왜 이곳 홍동마을에서 살고 싶어 했는지 조금은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왜 도시민들이 홍동마을로 귀농귀촌하고 싶어하는지...

빠르게 치열하게를 외치는 요즘 시대에 느리게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직접 느껴봐야 한다. 특히 귀농귀촌을 열망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물론 농촌생활이 그리 호락호락한 것도 아니다. 생각보다 돈벌이가 시원찮을 수도 있고, 느낌이 아닌 심심함에 '이건 아닌게벼~' 할 수도 있다.

농촌의 근본은 뭐라 해도 역시 농사.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사람과 자원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고 있는 이 마을. 농사일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꽃피는 이번 봄에 한 번 찾아가보길 바란다.

참! 이날 견학을 이끌어주신 마을활력소 강국주 교사에게도 감사드린다.(이러면 이분을 더 찾을까나?)